마음책 다시 읽기 **아픔을 다스리는 마음공부** ❺ 더듬듯이 천천히 꾸준하게 해가는 공부

▶ **한줄 요약**
인(仁)의 길을 가는 데 있어서 자신을 닦고 다스리는 수기(修己)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修己는 仁의 길 가는 유일한 통로



부처님이 제타숲에 계실 때 바라문인 상가라바라가 찾아와 붓다 교단의 수기(修己)중심의 수행이 자신의 구제에만 몰두하는 이기적인 차원에 있다고 지적했다. 자기 내부의 문제에만 천착하는 비구들의 행태는 어찌보면 중생은 버려두고 자신만 해탈을 하고자 하는 이기적인 모습으로 비추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부처님 열반 뒤에 대승과 소승의 교리 논쟁이 바로 이러한 것을 문제 삼은 것이었다. 비슷한 점을 지적한 상가라바라에게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바라문이여, 나는 그대에게 묻고 싶다. 생각나는 대로 대답하라. 바라문이여, 그대는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 세상에 여래가 나타나서 이렇게 말했다고 하자. 이것이 길이다. 이것이 실천이다. 나는 이 길을 따라가고 이 실천을 통해 닦음으로써 번뇌가 다한 해탈을 얻을 수 있었다. 너희도 이리 와서, 함께 이 길을 가고 이 실천을 닦음으로써 번뇌를 없애고 참다운 자유를 얻으라. 이와 같이 정각자가 법을 설한 결과 여러 사람이 이 길을 따르게 되어 자유를 얻은 사람이 수백 수천 수만에 이르렀다면, 바라문이여, 그대는 이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와 같아도 이 길은 역시 한 사람만을 위한 행복의 길이겠는가?"

붓다의 이 질문에 상가라바라는 당황했다. 부처님은 수기와 중생을 구제하는 문제를 둘로 보지 않고 하나로 보았다. 잠시 상념에 빠졌던 상가라바라는 부처님이 하고자 했던 말을 스스로 하지 않을 수 없었다. "고타마여, 그렇다면 출가의 행위 또한 많은 사람을 위한 행복의 길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증지부경전〉 〈중아함경〉)

스스로 마음을 닦으면서 수양해 가는 수기(修己)에 대한 강조는 공자에게서도 나타난다. 공자 역시 수도승과 같은 면모가 있었다. 작아 보이는 수기의 힘이 자신을 넘어서서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을 의심하지 않았다. 공자도 수기가 남을 편안하게 하는 안인(安人)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생각했다. 어느 날 제자 자로(子路)는 스승인 공자에게 군자란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를 물었다. 공자가 답했다. "경(經: 경서(經書) 경전(輕典))으로서 자신을 닦는다"

무인 기질이 다분한 자로는 이 맥 빠진 스승의 대답에 만족할 수가 없었다. 도대체 언제까지 자신만 닦고 있으란 말인가? 자로는 다시 물었다. "그러할 뿐입니까?"

그러나 공자의 태도는 확고했다. 수기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치 않는다. 내부의 힘에 의거하지 않는 외적인 행동주의는 자칫 자신을 해할 수 있고 남도 해할 수 있는 위험이 있다. 공자는 다시 말했다.

"자신을 닦아 사람을 편안하게 한다."

수기의 목적을 다른 사람을 편안하게 하는 것으로 확장시킴으로써 수기가 개인적 차원에 그치지 않고 사회적 역할도 있음을 언급했다. 그러나 자로는 다시 스승에게 반문했다.

"그러할 뿐입니까?"

거듭되는 반문에 공자는 옛 성현의 이름을 들먹이며 말했다.

"자신을 닦아 백성을 편안케 한다. 자신을 닦아 백성을 편안케 하는 것은 요임금과 순임금도 오히려 부심했던 것이다." 〈논어〉

인(仁)의 길을 가는 데 있어서 자신을 닦고 다스리는 수기(修己)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수기 없이는 인이란 있을 수 없다. 수기는 인의 길을 가는 하나의 방편이 아니라 사실상 유일한 통로이다. 그에 대해 공자는 이렇게 말한다. "군자는 자기에게서 구하고, 소인은 남에게서 구한다." 〈논어〉

군자는 자신의 내부에서 모든 것을 구하지만, 소인은 자신 밖에서 구한다. 군자는 자신을 닦는데 열심이지만, 소인은 밖에서 구한 것으로 자신을 꾸미는 데 공을 들인다. 공자도 부처님처럼 자기 내부에서 길을 발견하려 했다는 점에서는 같다. 국가의 세비만 받아먹고 당파 싸움에만 정신이 팔려 국민들의 삶을 위한 생각은 저 멀리 날려 보낸 것 같은 대한민국 국회를 사람들이 '식물국회'라 한다고 한다. 이에 어느 텔레비전 프로에 참석한 평론가가 "식물도 생각이 있다. 식물이 들으면 화낼 소리를 하지 말라"고 하는 말을 들었다. 식물, 그보다도 한참 떨어져 있는 위치에 서 있는 것이 우리나라의 국회이다. 국회의원들은 국민들과 천리만리 떨어져 있는, 대한민국 사람이 아닌 것처럼 느껴진다. 그들은 논쟁을 즐기고 싸움을 하지만 국민들을 위한 합의점은 찾지 못한다. 논쟁을 위한 논쟁이며 싸움을 위한 싸움만을 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논쟁은 수행 정진과 구법에 도움 안돼
논쟁 하면 상대 이기는 것이 목적된다
깨달은자 입이 무거운 것도 이런 이유

일반 사람들도 모여서 말을 이어가다 보면 어느 사이에 논쟁으로 변한다. 부처님은 제자들이 논쟁에 뛰어드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부질없는 행동으로 여겼다. 마음으로부터 상대방을 설득시키지 못하는 논쟁은 불법을 전하는 데도 도움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반감만 일으키기 쉽다. 무엇보다도 상대방을 이기려는 마음 자체가 자비로운 마음과는 거리가 멀고, 자비롭지 못한 과정을 통해 자비를 전하겠다는 것 자체가 모순인 것이다. 이런 점은 출가 수행하는 제자들을 바라보는 부처님의 시선이지만 일반 재가 신자도 입이 아니라 늘 마음으로 상대를 감화시켜야 하는 걸 잊으면 안 된다.

부처님은 "법과 법 아닌 것을 구별하지 못하는 까닭에 논쟁은 끝나지 않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다.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그 이떤 경우라도 논쟁은 하지 말라고 하셨다. '노여움은 마음의 평안을 휘젓는 가장 큰 독이니, 자기가 한 일에 오해가 생겼다 하더라도, 절대 변명은 하지 말라. 변명은 상대적인 대립의식이 있기 때문에 자기변호가 나타나는 것이고, 자기변호는 자신의 마음을 손상시킬 뿐만 아니라 상대의 마음까지도 손상시키는 행위이다' 라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나는 늘 가슴에 새긴다.

논쟁이란 사물의 일면만을 보고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성립되는 것이다. 사물 전체를 관조하는 사람은 논쟁을 하지 않는다. 상대방이 하는 말은 사물의 일부를 본 것이므로 틀렸다고 할 수도 없고 전적으로 맞다고 할 수도 없기 때문에 입을 다물고 마는 것이다. 깨달은 자의 입이 무거운 것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다.

논쟁이란 수행정진에 도움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법을 구하는데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논쟁을 하다보면, 애초의 의도는 사라지고 상대를 이기는 것이 목적이 되고 만다. 수행의 관점에서 보면 상대방을 짓눌러 상대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것은 상대에게는 이겼을지 몰라도 자신에게는 진 것이다. 결국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지 못했기 때문이다. 불안과 진애(瞋碍:분노)를 없애고자 하는 수행자가 오히려 그것을 일으키는 논쟁에 휘말리는 것은 진리를 버리고 삿된 감정에 집착한 꼴이 된다. 논쟁은 사람에게서 자비의 마음을 빼앗을 뿐만 아니라 악업을 짓게 한다. 논쟁을 하지 않는 것은 상대를 위한 것이라고 하기보다는 자신을 위한 것이며, 싸우지 않고도 이기기 위한 것이다. 논쟁하지 않는 것은 자신과 상대를 해치지 않고도 모두가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이다. 그것은 깨달은 자의 필연적 선택이다.

"도(道)를 듣고 진흙탕 싸움에서 말하는 것은 덕(德)을 버리는 것이다" 〈논어〉

무엇보다도 부처님의 가르침을 생활화하는 정신이 가장 필요하다. 항상 주위를 보살피는 마음의 여유를 갖고, 매사에 고마움을 갖고 살아야 한다. 불법은 신앙과 실천으로서 참다운 존재를 깨닫고 확고한 안심을 얻는 것을 최고의 목적으로 한다. 또한 불교는 단순한 이론적 사상이 아니라 실천적인 종교이다. 진리를 이론적으로만 해명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주체적인 존재를 변혁, 향상 시켜 가는 방법을 찾아 행하는 것이다.

오늘날 같은 초현대 세상에서 불교는 무엇인가?

현실속에서 인간이 겪어야 하는 고통을 없애는 것, 그것이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어 세상에 법을 펴신 목표다. 법은 실지로 사실을 경험하여 증험되는 성질의 것이며, 지혜로운 이는 저마다 스스로 알 수 있는 성질의 것이다.

부처님은 관념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문제에 관심을 가졌다. 지극히 현실적인 문제를 가장 근본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 했으며, 그 근본적인 방법이란 깨달음이 있는 자비와 지혜, 지혜와 자비로운 깨달음이다.

"비구들이여, 예컨대 여기 한 사람이 있어 숲속을 헤매다가 문득 옛사람들이 다니던 옛길을 발견했다고 하자. 또 그 사람은 그 길을 따라가다가 옛사람들이 살던 옛성, 정원이 있고 아름답게 꾸며진 연못이 있는 성을 발견했다고 하자. 그는 즉시 왕에게 그 길을 보고했다. 이에 왕이 그곳에 도성을 세웠다.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모여 들고 도성은 번성하게 되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과거의 정각자들이 거닐던 옛길, 고도를 발견한 것이다. 그렇다면 비구들이여, 과거의 정각자들이 발견한 그 길은 무엇인가? 그것은 저 성스러운 여덟 가지의 길, 즉 팔정도 인 것이다."

부처님은 자기가 발견한 법이 새로운 것이 아니라 이미 예부터 있었던 것이며, 과거 시대에 깨달은 분들이 역시 발견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설사 과거의 일곱 부처님이나 깨달은 분들이 공통으로 알아서 깨달은 것이라 하더라도 현세 석가모니 부처님이 그 법을 체계화 하여 사람들에게 알렸다는 것은 인류에게 일대 대사건이 분명하다. 부처님은 법을 만들어낸 사람이 아니라 그 법을 발견한 사람이다. 그법은 보편적인 법칙이며, 부처님이 아니라도 존재하는 것이다. 그러나 보다 중요한 것은 그 법을 체계화시켜서 우리 인류들에게 가르침을 주었다는 것이다. 혹, 그법을 발견했던 다른 깨달은 이가 있어 발견은 했으되 인류에게 가르침을 주지 않았다면, 그 훌륭한 법은 인류의 생활에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하는 것이다.

공자에게 스승이 누구냐고 묻는 질문에 공자는 뜻밖의 대답을 했다. "옛것을 되살려 새롭게 깨닫는 것, 그것을 스승으로 삼을 수 있다" "나는 나면서부터 아는 사람이 아니라 옛것을 좋아해서 빨리 그것을 구한 사람이다" 즉 공자의 스승은 옛것이었다.

공자는 새로운 철학을 개진하는 대신 기존의 관념을 새롭게 도덕화했다. 또한, 새로운 덕목이나 개념을 만드는 대신, 그것을 재발견하고 더욱 깊은 가치를 부여했다. 그 개념들을 더욱 높은 차원으로 승화시킨 것이다. 옛것의 자양분을 빨아들여 철학적 바탕으로 삼는 것은 공자나 석존뿐 아니라 위대한 사상가들의 보편적인 행위이다.

〈최혜자 지음 / 운주사 펴냄〉



가정에서도 수행에 전념할 수 있도록

당연하게 여겼던 사찰에서의 수행이 어려워진 요즘,
꼭 어딘가에 가지 않더라도 가장 편안한 공간에서
불자분들의 수행이 계속될 수 있도록

가정용 수행 용품을 붓다북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붓다북
불교종합쇼핑몰
불교서적 | 불교용품 | 명상음반
www.buddhabook.co.kr
서울시 성북구 보문로 38길 11
돈암동일하이빌 B1 ㈜운주사
Tel. 02-953-7181
법보시용 대량 주문은
전화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상담해드리겠습니다.

나이가 들어가며 염불이 점점
힘이 드는 스님들에게! 마이크와 2m 멀리서 작은 소리에도 장엄

하고 신명 넘치는 염불소리로 바꾸어 드리는 최신 디지털 염불시스템 소개 : 본품은 방문 판매만 함으로 시중에 없고 있을시는 일천만원 포상! (지금 이글은 법적증서)
본품은 100% MADE IN KOREA 특징 : 인건비, 부품이 좀 비싸도 성능이 월등하고 고장이 없음.....지금은 오히려 국산품이 귀하고 대접을 받는 시대!

반드시 귀 사찰의 부근을 지날 때만 겸사겸사 방문! 오직! 마이크 하나만 바꿈에도 완전 소리 업그레이드!
본사는 설악 신흥사와 남해 토굴까지 2천여 사찰을 시설한 베테랑업체!

전국을 다니며 시설함으로 귀 사찰을 부근을 지날때 견본으로 일단 소리만 비교
소리비교비용은 커피 한잔!

▣ USB겸용 앰프1, 스피커 4개, 헤드셋 핀 핸드무선마이크, 무선마이크 종류별 4개, 유선마이크 1개 (스탠드 포함) 시설가격 190~수 천만원까지 (설악 신흥사 설법전 1400만원 시설 확인해 보세요)

▣ 주소 : 경남 김해시 진례면 진례로 백팔 NK사운드 대표 박 공 희 ☎ 055-343-1191, 010-9471-2026

충전식 / 출력 300kw / 헤드셋 무선 2개
유선 2개 마이크 4개 동시사용, USB 동시녹음
실내 100평 가능 / 야외사용 겸용 (스탠드 포함)
가격 ₩ 79만원

넥타이핀마이크 2개, 헤드셋마이크 2개, 마이크 숫자 4개
▣ 한국사찰 각종 재 필수품 주문 방문설치, 사용설명
시중에 없음
가격 ₩ 60만원

시중에 없음
특징 : 마이크와 2m거리에서 작은 소리에도 청아하고 신명나는 소리로 화답!
가격 ₩ 80만원